

온라인 정보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며

김민성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조사연구과

개요

'96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 영국 런던의 올림피아 전시장에서 20주년을 맞이하는 「Online Information '96」 정보통신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19기관의 전문가 35명으로 참관단을 구성하여 전시회에 참관하였다. 특히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이 전시회에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현황 소개를 위하여 참가하였다. 「Online Information」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 이 행사는 매년 겨울에 개최되는 금년이 20회 행사인 유서깊은 행사로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통신 관련 행사중의 하나이다. 본 행사의 목적은 정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정보 통신 관련 산업계의 선진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전시와 주요 기술 및 정보 통신 동향에 대한 컨퍼런스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Online Information '96」은 영국의 Learned Information Europe Ltd.에서 주최하고 가디안사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전시회의 모습

행사 2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금번 「Online Information '96」행사는 세계 각국의 264개 정보통신 관련기관 및 업체가 참가하였고 500여명의 전시요원과 참관객수가 약 30,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시회였다. 전시장은 런던 시내에 있는 상설 전시관인 올림피아 컨벤션 센터의 1층, 2층 및 3층에서 개최되었는데 전시장 규모는 큰 면적은

아니었으나 3개층을 사용하여 비교적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업체가 참가하였기 때문에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면 한 업체당 약 3~4평정도의 규모로 진행되었다. 각 업체의 홍보활동이 매우 활발하였고, 참관객들이 많이 전시장을 둘러보았기 때문에 전시관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관심을 가진분야의 전시관에는 참관객들이 전시관에 상주하는 홍보요원들의 설명을 열심히 경청하면서 질문하는 매우 열띤 분위기였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전시관에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체들의 정보와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들의 홍보를 부탁하여 한국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이 외국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전시장 입구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어서 총체적인 안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각 층마다 안내요원이 있어서 참관객들의 질문에는 성실히 응답하고 도움을 청할때마다 직접 안내하는 등 행사준비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또 운영되어 많은 참관객들에게도 불구하고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운영되었던 점이 무척 인상 깊었다. 한국의 관련 전시회들도 이런 점을 배워서 각종 전시회를 운영한다면 보다 많은 참관객들을 유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었다.

출품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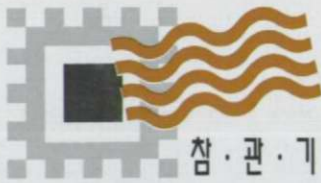
정보통신 산업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매우 다양한 내용이 전시되었는데 먼저 전시업체들을 살펴보면 크게 온라인과 관련된 부문, 인터넷 접속

및 웹(WWW) 부문, 최신기술 소개부문, 전자출판 부문 및 여러 주제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현황 등 크게 5가지로 구분지어질 수 있다. 워낙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였기 때문에 일일이 업체를 소개하는건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대표적인 몇 업체들의 전시내용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온라인 관련부문은 특별한 업체에서 전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올림피아컨벤션센터의 1층에 있는 안내 데스크옆에 런이드사에서 마련한 UKOLUG (UK 온라인 User Group)에서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 관련된 간단한 정보를 설명과 동시에 시연하여 줌으로써 온라인에 대한 개념과 인터넷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었다. 인터넷과 웹관련 정보는 범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 유통업체인 UUNet Pipex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인터넷 접속, 온라인을 이용한 출판, 보안, 근거리 접속 네트워크(LAN), 클라이언트/서버 기술 및 교육전문 회사이다. 최신기술은 이 행사의 주최사인 런이드사에서 선보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CD롬, 정보통신 관련 여러 컴퓨터 소프트웨어, 새롭게 개편된 "The IT Marketing Book"과 정보통신 산업계에 잘 알려진 "The Computer Users Year Book" 및 "The Software Users Year Book"을 선보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매체출판 회사로서 Internet World, Web Week 및 Web Developer의 3종의 인터넷 잡지와 세계적으로 호응받은 바 있는 Largest Internet, Intranet 관련 기술을 출품한 맥클러미디어사에서 볼 수 있었다. 전자출판 부문은 잡지, 서적, 관련자료의 초록 및 목록 등을 발간하는 물리학 관련 출판사인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에서 응용물리학 및 화학분야의 서적을 CD롬 형태로 발간되는 전자서적과 과학분야의 소프트웨어도 출시하여 전시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최근에는 웹(WWW)에도 관련자

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전시관에서 자료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음을 시연하였다. 문자정보 및 정지화상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인 Digital Imaging & Technologies Inc.는 평균 매일 175,000면을 T1급 통신선을 이용하여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다. 문서는 SGML로 작성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나 규격에 맞추어 다양하게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많은 참관객들이 이를 시험해보고 감탄하였다.

마지막으로 FOLIO Co.는 700여명의 요원이 2,000여개의 전자출판물을 CD롬, 디스켓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자사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샘플을 전시하였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또한 전시된 내용중 자사의 전자출판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FOLIO Web Retriever를 제공하는데 이는 Web 자료를 자동으로 다운로드(Download)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오프라인 브라우저로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데이터베이스 현황은 각 주제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회계 및 금융부문, 화학관련 산업부문, 회사재무부문, 경제부문, 공학부문, 개인회계지원부문, 정부기관 관련부문, 관리부문, 시장분석 및 판매부문, 기업합병 부문 등이 그것이다. 각 부분들은 일부 대형업체에서 중복서비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다우존스 지수로 잘 알려진 다우존스사는 범세계적인 회사로서 다우존스 뉴스를 포함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웹상에서 인터랙티브(Interactive) 방식으로 편집된 정보를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및 기타지역으로 이용자에게 말 그대로 전세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검색통계에 대한 자료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높여주었고, 제공되는 분야도 광범위하여 회계, 금융, 관리 등 위의 전 부문의 정보를 이용자에



계 서비스하고 있었다. 사업, 뉴스, 법률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수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업체인 LEXIS-NEXIS는 국제적인 사업에 관련된 적시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재무/재정 분석가, 언론인, 시장 및 광고관련 전문가, 법률가, 투자자문가 등에게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Bloomberg, Dun & Bradstreet, Kreditreform 등 The Reed Elsevier Group 회원사를 통하여 여러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공되는 분야는 다우존스사와 마찬가지로 전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금번 참관중에 방문하였던 업체중의 하나인 퀘스텔오빗사도 Online Information '96에 전시관을 설치 하였는데 이 회사는 국제특허, 무역, 화학, 과학, 기술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업체로 알려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온라인 정보 및 정지화상을 빠르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으로 화면(User Interface)이 구성된 통신 소프트웨어와 몇 개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및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한 모델을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전시관을 소개하면 우리 센터가 참가한 목적은 영국의 런던사가 DPC의 협력사이기도 하지만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DPC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데이터베이스를 전시하지는 않았지만 참관객들에게 영문화된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백서를 배포하여 국내 산업을 소개하였고 한국 데이터베이스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참관객들의 문의사항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여 이해를 도와주었다.

있는데 특히 정보의 집합체로서의 데이터베이스 콘텐츠와 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 이용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4가지 산업이 균형있게 갖추어 발전해야 비로소 활성화 될 수 있는 고도의 자료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컴퓨터의 개발 추세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고 또 많은 크고 작은 행사가 주축되지만, 유럽지역인 영국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느낀 점은 행사규모가 내실있게 운영된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업체의 우수한 정보들을 전시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다.

각 전시관의 규모들은 한국의 전시관에 비하여 크지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사를 참관객들에게 홍보를 하며 참관객들이 관심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알기 쉽도록 친절한 설명을 몇번이고 반복하는 모습에서,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질문하는 참관객들의 모습에서 전시에 참가한 업체나 이를 찾은 참관객들에게 서로 만족을 주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였고 이러한 만족감이 본 전시회를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았다. 참관객들의 수준 또한 매우 높아서 각국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모여서 자국 또는 자국의 기업에 대한 홍보와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 방향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는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전시관에서도 많은 외국의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에서 한국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정보와 협력 가능성 등을 질의하는 모습에서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상호경쟁과 협력이라는 국제사회의 틀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전시회에 한국의 많은 데이터베이스 관련업체도 참가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DPC**

맺음말

데이터베이스산업은 여러 산업의 지원을 받고